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서



이정미(안나)
성모임상사목교육터

임상사목교육 과정은 자신을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는 신비로운 과정이다. 환자 방문 사례를 나누고 나를 내어 놓으면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보살핌을 받게 된다. 특히 환자 방문 후 묵상은 환자를 위한 기도가 곧 나에게 대한 기도가 되어 내 안에 더욱 깊이 들어가게 된다.

나에게는 아무진 인상이라는 말이 칭찬으로만 들리지 않고, 만나는 사람을 좀 더 마음으로 만나고 싶은데 쉽지 않은 점에서 내가 통과해야 할 나의 그림자를 만나게 되었다. 반복적으로 갈구하고 있는 자유로움과 보호하고픈 완벽이라는 틀 사이에서 나를 찾기 위해 그림자를 끄집어내는 작업을 피할 수 없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의 나

‘어머니’를 어릴 때는 많이 닮고 싶었고, 이제는 너무 닮아 있는 내 모습은 바로 나의 어머니다. 1남 4녀의 막내로, 그것도 건강이 좋지 않은 늦은 나이에 나를 낳으셨던 어머니. ‘막내 결혼이나 볼 수 있을지’, ‘내 몸 하나 아픈 것으로 집안이 편안하면 감사하지’, 어머니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어린 마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쩌나 불안해 했고, 약한 몸으로도 완벽한 현모양처가 되려는 어머니가 원망스럽기도 했다. 막내로서 어머니를 독차지하기 보다는 스스로 어른스럽게 생각하

고 행동하면서 부모님의 인정을 받으려 애쓰며 성장한 나는 기특하고 야무져서 대견한 아이였다.

하나뿐인 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오빠의 빈 자리를 대신하려 마음을 다해 친정 부모님을 돌보아 드렸지만 나에게 대한 미안한 마음과 오빠에 대한 그리움으로 힘들어 하셨고 어머니의 척추 부상이 회복되면서 결국 미국으로 떠나셨다. 부모님을 강하게 붙잡지 못하고 부담을 더는 훌가분한 마음을 갖게 된 죄책감과, 아들을 선택한 섭섭한 마음은 나를 힘들게 했다. 그러나 그동안 든든한 막내딸로 살기 위해 애쓴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힘든 결정을 내린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려 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곁에 두고 싶어 발버둥 치던 나의 내면아이에게 그동안 애썼다고 말해주고 싶다.

어머니로서의 나

어머니로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친정 어머니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결혼생활에서 나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완벽하게 역할을 하느라 진정한 나는 없었던 것 같다. 아이들에게는 잔소리를 별로 하지 않아도 부모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아차렸고 나의 성향은 딸과 아들에게도 전해져 생각이 깊고 남을 배려하는 아이들로 자랐다.

대화를 할 때 상대를 배려하여 감정을 돌려서 표현하거나 스스로 내어놓을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데 이러한 신중함으로 상대가 나를 가볍게 대하지 못하고 나의 의도가 강하게 전해지곤 한다. 대화에서 나 자신은 물론 상대에게도 자유로움이 허락되지 않았다. 딸 아이가 대학생이 되어 다양한 화제로 대화를 하면서 나의 주도적이고 예리한 성향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낸다. “그냥 엄마 생각을 이야기 하세요”, “엄마는 귀신같이 어떻게 그리 잘 아세요”, “엄마가 말하지 않아도 엄마의 생각을 의식하게 돼요.” 아이의 내면에 엄마의 완벽함에 대한 긴장과 기대에 대한 부담이 반감으로 내게 돌아오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아이의 도전은 당황스러웠지만 그동안 아이를 자유롭지 못하게 해서 미안했고 솔직히 표현해주어 고맙웠다.

환자와의 관계에서의 나

환자 방문에서 목표 지향적인 내 성향은 도전을 받았다. 환자 앞에서 무력했고 내가 설 자리가 없어 당황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깊이 보게 되었다.

대장암 치료 중인 60대 후반 여자 환자가 있었는데, 치료 과정을 수용하지 못하고 간호하는 딸을 매우 힘들게 하여 안타까웠다. 여러 차례 방문에도 마음을 열지 않더니 노골적으로 방문을 거절하였다. 부담을 주어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강한 거부에 대하여 불쾌하고 창피했다. 환자에게 가졌던 감정을 돌아보며 환자의 고통을 함께하려 하기보다 자신과 딸을 힘들게 하는 이성적이지 못한 환자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의 예의 바르고 신중한 태도가 불안으로 힘든 환자를 숨 막히게 했으리라 생각되니 연민의 마음을 갖게 되어 다시 방문하여 나의 솔직한 마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저 미안한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환자는 오히려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였다. 지치고 무기력한 환자의 상태에 머무르니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었고 나에게 중요했던 자존심은 애써 찾으려 하기보다 내려놓을 때



오히려 채워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착하고 바르게 살아온 30대 중반의 남자 환자가 있었다. 환자는 뇌종양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는데 병상에서도 가족을 배려하며 힘든 미소로 고통의 신비를 묵상하고 있었다. 환자는 고백성사를 하는 듯했고 하느님 중심으로 살고자 했던 그의 삶이 너무 가슴 아프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러워져 돌아와서도 기도 중이나 일상 안에서 무거운 마음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묵상 안에서의 나

나는 삶을 그리 쉽게 사는 것 같지 않다. 어릴 때는 어른들의 칭찬을 통해, 성장하면서 자신의 기준에 의해, 부모가 되어서는 좋은 모델이 되기 위해, 나이가 들면서는 삶의 마무리를 위하여 언제나 한 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긴장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살았다. 내에 대한 평가는 그런대로 만족스러우나 마음이 편하지 않다.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자유롭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기대하면서 나는 외톨이가 되어가는 것 같다.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기대고 싶습니다. 꺾여지면 바로 시들어 버릴 힘 없는 풀과 같은 제 자신을 받아주십시오. 저의 기준이 아닌 하느님의 뜻에 의지하여 살고 싶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자신을 받아들여 애쓰는 나

임상사목교육 과정은 그동안 보기 좋게 포장되어 있던 나의 모습을 조금씩 흠집 나게 하였다. 특히 음악치료를 하면서 강한 도전을 받았고 치료 과정 내내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나는 외로운 존재’이며 ‘사랑 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임상사목과정의 일환으로 8박 9일의 영신수련을 하면서도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느님과 깊은 체험이 없이 머리로만 커진 신앙이

특집

가슴으로 아프고 뜨겁게 다가오는 시간이었다.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 바라보신 예수님의 눈길에서 나는 “괜찮다”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와 자주 내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며 너그러워지고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었다.

지도 수녀님과 교육 과정에 함께한 그룹원들의 지지와 격려는 나 자신을 알아가는 힘든 과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나의 외로움과 사랑 받고자 하는 마음에 힘이 되어 주었고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었다.

임상사목교육 과정을 하면서 ‘왜 하려 하는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자신에게 질문하게 된다. 힘든 과정이지만 나를 아는 것이 힘이 되고 무엇보다 사랑을 하게 된다. 자주 하느님 앞에 앉아 당신의 뜻이 무엇인가

여쭙게 되는데, 내가 움켜쥐고 있는 손을 펼쳐 보일 때 짊어지고 있는 내 삶의 무게를 거두어 주시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두 손에 듬뿍 담아 주신다. 내 자신부터 영적으로 보살필 때 어려움에 있는 환자를 진정으로 보살피게 되는 것 같다.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내 삶 안에서 물어 오시는데, 한결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슬퍼집니다. 그래도 늘 “괜찮다” 하시며 저를 위로하십니다. 저의 부족함을 모두 아시지만 저에게 양들을 돌보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환자들과의 만남 안에서 사랑을 살아가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지도자 염경자 보나벤투라 수녀



평가를 마치고 그룹원들과 지도 수녀님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좌측 흰 상의를 입은 사람이 필자, 앞줄 좌측에 계신 분이 염경자 수녀님